

# 각계 전문가 복지현장으로 불러내자

## 불교복지 전문화하자

불교 복지계에 '전문화' 바람이 불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2월 23일 불교사회복지연구소를 공식 창립한데 이어 조계종 포교사단도 3월 2일부터 케어복지사 자격증반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이에 앞서 이미 천태종과 진각종도 2006년 사업의 핵심 키워드중의 하나로 '복지'를 선정하면서 '전문화'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전문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있느냐는 것이다. 주요 종단과 단체들의 움직임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본다.

### # '복지포교사' 양성 팔걸었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양성홍)이 3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5개월에 걸쳐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케어복지사 양성 과정이다. 케어복지사는 정신적·육체적인 장애로 인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돕는 사회복지사로 최근 '전문복지'를 상징하는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매주 화, 목요일에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사회복지개론과 노인복지론, 케어개론, 원예치료 등 20여개의 과목이 개설되며,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각·해도 스님 등이 강사로 나선다.

포교사단의 케어복지사 양성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비(非)복지단체인 포교사단이 복지사 양성에 뛰어든 것 때문이다. 포교사단이 기존의 복지단체도 하기 힘든 일에 팔을 걷어붙인 이유는 무엇일까?

포교사단 양성홍 단장은 "현장에서 포교사들이 불법홍포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지만 최근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설했다"며 "전문지식 없이 하는 자원 활동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 연구기관과 현장의 '손잡기' 활발

복지 사업을 활발하게 펼쳐온 주요 종단들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2월 23일 불교사회복지연구소를 창립하면서 불교복지 전문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불교사회복지연구소는 불교복지시설 현황과 실태 조사는 물론 매년 복지관련 아이টে임을 주제로 하는 학술포럼을 4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또 불교사회복지 연구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해 불교복지 연구자와 종사자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활동의 전문화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자원봉사자들도 전문지식을 이용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권윤희씨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미술치료를 하고 있는 모습(왼쪽)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봉사자들이 발마사지 봉사를 하고 있는 모습. 현대불교기자사진



## 각 종단 올해 사업 키워드 '복지 전문화' 봉사자 10만명 추정, 대부분 단순 노력 봉사 전문교육 통해 자원봉사자 역량 끌어올려야

이와 함께 불교복지 종사자들과 시설을 운영하는 스님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등을 병행한다.

진각종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진각종은 우선 각 지역 심인당과 시설을 연계해 신도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이끌어내는 '산하시설 지도소송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종립대학인 위덕대 산하 진각사회복지연구소와 산학 협약을 체결해 복지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각종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는 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한다. 6월에는 현재 서울경기지역에만 구성된 있는 진각사회복지재단의 대구지부도 발족할 예정이다.

진각복지재단 장지현 사무처장은 "사회복지 특성화대학인 위덕대를 통해 불교복지 전반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실무자들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천태종도 3월 이전에 의료봉사 등 기능·직능별 600여명 규모의 대규모 자원봉사단을 발족할 방침이다.

### # 단계별 영역별 교육 늘려야

그렇다면 과연 종단과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전문화'는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전문가들은 '전문화' 이전에 기존에 활동을 하고 있는 인력들의 역량을 배가시키기 위한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전문 역량을 배가시키는 것이다. 현재 불교계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는 대략 10만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시설 숫자만 600여개에 이른다. 특히 사할 신도회와 전국의 불교대학 출신 자원봉사자들은 지역 복지시설과 연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기도 하다. 경기 지역의 천수천안 봉사단과 영남 지역의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봉사단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원봉사 활동이 묵묵이나 청소와 같은 단순 '노력 봉사'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보니 봉사활동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활동가들의 능력도 쉽게 떨어진다. 중도 탈락자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종단 복지담당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에서 자체 교육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요식행위' 수준을 넘지 못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용권 사무국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단계별·영역별 전문 교육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간병인 양성 전문교육을 하고 있는 영천 은혜사주지 법태의 예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다.

은혜사는 2005년 2회의 간병인 양성 전문교육을 진행해 55명의 간병사를 배출했다. 4주간 16시간의 이론교육과 3주간 매일 4시간씩 현장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힘든 과정이지만,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3월에는 3기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은혜사 연구원장 해태 스님은 "올해 안에 정예 간병사 100명을 배출할 계획"이라며 "노력 봉사 위주로 활동을 하던 신도들의 자원봉사 영역이 넓어지면서 지역 복지시설에서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 인력관리·지원시스템 '부실'

최근 신행단체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의사와 변호사, 상담활동가 등 전문가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네트워크 구성도 중요하다.

현재 각 종단과 복지기관에는 병행불자회나 법률전문가 모임 등을 제외하고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 자료가 없다. 이·미용과 법률, 의료는 물론 통·번역, 수화, 점자 번역, 상담 등으로 전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 영진복지관에서 미술치료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권윤희(35)씨는 "해당 시설은 물론이고 종단 차원에서 전문인력 봉사자들의 리스트를 공유한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단과 연계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존 단체와 전문가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절실하다. 40여개 회원사를 거느리고 있는 전국병행불자연합회는 매년 2차례에 걸쳐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조계종의 지원은 200만원에 불과하다.

A병행불자회의 한 관계자는 "종단의 지원은 기대하고 있지 않다"고 절라 말하며 "봉사 대상 섭외와 경비 총담 등 모든 준비를 알아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전문가단체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지난 1992년 이후 400여명의 상담활동가를 배출한 불교상담개발원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은 것도 문제. 현재 100여명의 상담활동가들이 매일 8시간씩의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만 이들의 활동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법회삼부경>을 점자경전으로 발간했던 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 해조 스님은 "개인의 재능을 드러내지 않고 이웃을 보살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비해, 불교계가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 # 교육기회 많을수록 현장도 탄탄

자원봉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것과 함께 복지시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조계종 산하 복지시설에는 1500여명의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2-3년 이내에 일을 그만두는 사람이 적지 않으며, 절반 이상이 이직이거나 이교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복지시설 운영은 물론이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도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 1년에 1-2차례에 불과한 교육으로는 종사자들의 역량을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불교적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양교육과 함께 종립대학인 동국대나 위덕대와 연계된 연수 프로그램의 시행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김응철 교수는 "불교복지의 근간이 되는 자원활동가와 시설 종사자, 관련 전문가들을 발굴하고 양성하지 않는 전문화는 구호에 불과하다"며 "불교복지의 토대를 다시 탄탄하게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취재팀=한영우·노병철·유철주 기자

# 통도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 대법회

## 귀의 삼보하옵고

불보종찰 통도사 적멸보궁 금강계단은 자장율사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봉안하고 전국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계율을 설하여 1360년간 전승해 온 유일한 계율의 근본도량입니다.

계를 지니면 서두른 곳에서 불빛을 만남과 같고,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음과 같고, 병난 이가 쾌차함과 같고,  
간했던 죄수가 풀려남과 같고, 멀리 집 떠난 이가 돌아옴과 같나니라.

- 범망경 중 -

계를 받는 공덕은 무량한 복덕을 쌓는 일인 것입니다.

예년과 같이 통도사에서는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봉행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세계생생 이어질 선근의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병술년 불기 2550년

- 입재일 2006년 4월 2일(음. 3월 5일) **일요일**
- 회향일 2006년 4월 4일(음. 3월 7일) **화요일**

## 장 소

통도사 금강계단

## 전 계 대 화 상

전계대화상 증산 혜남

## 동 참 금

50,000원

## 문의 및 접수처

회향전 접수처 055)381-1288 각 사(사) 중무소

- 연락처 : 부산포교당 (051)816-2241 마산포교당 정법사 (055)245-6544
- 창원포교당 구룡사 (055)255-6359 울산포교당 해남사 (052)211-3340
- 밀양 표충사 (055)352-1150 밀양 무봉사 (055)354-3296
- 창녕 포교당 (055)533-2295 서울포교당 구룡사 (02)575-7766
- 서울 보현사 (02)355-9815

## 교통편

- 통도사 버스 - 부산 : 온천장 지하철역 앞 08:00 ~ 09:00
- 울산 : 공업탑 로타리 제일주유소 08:00
- 무거 로타리 고속도로 진입로 08:10
- 대 중 교 통 - 부산 : 노포동 시외버스, 고속터미널 울산 : 시외버스터미널
- 대구 : 고속터미널 「부산행 일반고속」 서울 : 동서울고속터미널

##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도사